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꿈

필

자는 어제 밤 또 다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꿈을 꾸었다. 도서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몇 개의 다른 단말기 주위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검색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만족감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진정 “꿈과 같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학생들, 교원, 도서관원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와 대화를 나눌 때 모두 찬성을 등록하는 것처럼 보였고 검색 결과에 기뻐하고 있었다.

필자는 다소 신비로운 그 환경을 조사하고 싶어서, 그 도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돌아갔다. 문은 잠겨있었지만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렇듯 신비스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앞에 즉시 앉았는데, 이내 그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멋졌던 것이다.

스크린을 보니 마음을 끌면서도 평온함을 주는 편안한 색깔이었다. 사용 가능한 색깔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면서도, 깜빡 거리는 단어들에 있는 환각적 빛깔도 아니었다. 그런 단어들은 단순히 비디오 아케이드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웹 페이지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 색깔들이 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와 그래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특성과 검색모드 레벨선택옵션을 결부시킨 공간 감각이 있었다. 정말이지 여기서는 “보다 더 적은 것이 보다 많은 것”이었다. 게다가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가 필자가 잘 알

고 있는 곳을 알았을 때 대단히 안심이 되었다.

그 곳은 그 분야에서 다년간 확고한 명성을 쌓은 업체였다. 그 기업은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인터페이스는 어떤 주제에라도 맞출 수 있도록 클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검색하는 기능은 옵션이었다.

잠자기, 어쩌면 꿈을 꾸기 위해

필자는 이것이 전문(全文)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자의 낭패감을 즉시 없애준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고무되었다. 전문(全文)의 범위에는 특집기사, 서평, 사설, 월간잡지 부문과 전권(全卷) 색인이 포함되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전문(全文)에 대한 요구를 무관심, 게으름, 혹은 학문의 쇠퇴와 동등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은 전문(全文)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때는 인터페이스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필자는 학생의 역할을 맡아 기본 검색모드를 선택했다. 디폴트 박스에는 키워드로 제목, 저자, 혹은 소스를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디폴트 연산자는 인접연산자였다. 필자가 주제를 어구로 입력하자 검색했던 것을 정확히 찾아주었다. LIFO(후입선출방식)로 기입된 짧

은 인용문들을 다 읽고 감동을 받았다. 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페이지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20개의 인용문을 읽고 그 중 다섯개를 선택했다. 클릭하여 텍스트로 곧장 가거나 표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인쇄, 전자우편, 다운로드는 모두 화면표시 옵션이었다.

짧은 인용문들을 전부 검색했을 때, 각 스크린의 하단과 상단에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었다. 전문(全文)을 클릭 하자, 기사가 항상 개요로 시작하고 다음 기사와 이전 기사에 대한 광고판이 있음을 알았다. 이들은 스크린의 상단과 하단 양쪽에 있었고, 짧은 검색 결과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도 이것들과 함께 있었다.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그것은 검색어들이 눈에 확 띄는 빨강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기사의 끝에 이르렀을 때, 또 한번 기분 좋게 놀랐다. 과연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일까? 각 기사의 끝에는 포맷이 APA, MLA, 그리고 소스를 인용하는 그 밖의 주요한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다.

꿈결같은 시간을 보내다

어떤 기사들에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었다. 주제에 따라 필름 클립을 볼 수도 있고, 연출자가 특정한 카메라 앵글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거나 저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최근의 비평에 관해 논하는 짧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부 사진과 그래픽은 컬러로 되어 있어서 컬러프린터로 근사하게 복사할 수 있었다.

담당 교수는 기사와 책도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논문 작성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을 허용했다. 기사를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 웹사이트로의 핫링크들이 눈에 띄었다. 클릭하여 들어가니 필자의 논문주제를 다룬 믿을만한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또 다른 유용한 웹사이트로 갈 수 있었다. 온라인 시소러스나 핫링크 되어 있는 주제표제, 저자, 저널들을 클릭해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했다.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하자. 필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나오자, 라이브러리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클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렇게 하자,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이 섞여 있는 홈으로 돌아왔다. 필자는 "행복한 야영객"이었다. 전자 인터페이스로 시간을 절약한 덕분에 정보를 읽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

낼 수 있었다.

그에 더해 논문을 주의 깊게 정리하고 잘 쓰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A+는 따 놓은 당상이 확실했다. 그리고 만약 뭔가를 잊어버리면, 기숙사나 집, 그 밖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행성이면 어디서라도 오프사이트 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었다. 존 글렌이 우주공간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던 것을 잊지 말기를!

백일몽 신봉자

다음으로는 교수회 임원 역할을 맡았다. 필자는 갑작스럽게 작고 혼잡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많은 교수회 임원들이 흔히 불평하듯이 필자도 너무 바빠서 도서관에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때에 오프사이트 액세스가 필수적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필자가 내년에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연구 능력으로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고급 검색모드를 선택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용어를 결합하고, 날짜를 지정하며, 간행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고, 멀티미디어 기능, 인터넷 링크들, 혹은 문학비평이 담긴 논문과 자세히 검토된 논문 포함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서평, 월간잡지 칼럼, 특정 저자, 저널, 그외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걸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배제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만약 확신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 내역을 클릭하여 주제를 전부 다루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모르는 사이에 필자는 필요한 인용문을 확보했고, 그것은 논문을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을 주어 필자를 강력한 승진 경쟁 상대로 만들었다. 필자는 검색 전략과 결과를 저장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매달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의기양양해졌다.

학생들만 정보 인용 포맷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 소스의 변화와 새로운 전자 소스의 도래로 소스를 적절하고 용이하게 인용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는 솔선해서 각 기사의 단락에 신중하게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손수 그런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되돌아가 단락을 세지 않아도 위치 번호를 간편하게 인용할 수 있었다.

처음에 필자는 인터넷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권위있는 대학

의 학자들이 만든 연구 주제로 링크할 수 있음을 알고 기뻐했다. 필자의 학위 논문 지도교수님을 발견하니 안심이 되었다. 필자로서는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기사 자체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었다. 필자는 동료와 검색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가로 3 세로 5 인치 카드에 대해 추억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도서목록 인용문을 기록하고, 그 조목에 근거하여 각주를 달았었다. 우리는 그렇게 늙지도 않았지만 믿든 믿지 못하는 간에 우리 둘 다 학위 논문을 손으로 썼다. 그리고 그때 윗면이 하얀 색인 검은 종이를 사용하는 사진복사기가 이제 막 도입되었었는데 한 페이지 당 복사비가 25센트나 했다.

미래에서 꿈 과거에 대한 꿈

필자는 다시 한번 신분을 바꿔 도서관원의 견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았다. 사용자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는 가격이 적절하여 예산에 맞출 수 있었다. 한번 구독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인용문을 인쇄할 수 있었고,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동시에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는 일별, 시간별, 동시 사용자의 수별, 각 정기간행물 제목의 검색 횟수별로 온사이트 액세스와 오프사이트 액세스 상태에서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필자에게 월간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꿈꾸는 중에서도 이 정보가 입안, 예산편성, 경영진에 소요 경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하리란 생각이 확연히 들었다.

이 제공업체가 인터넷에서 그 자료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고, 맨 처음 정보는 차트와 그래프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 최신 통계로 클릭해 들어갈 수 있었다. 만약 질문할 것이 있으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중한 대답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자의 견지에서 볼 때도 기분 좋은 것이었지만, 검색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것이었다. 예전의 포인트 앤 클릭(point and click) 인터페이스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모두 부울 연산자, 용어 중첩, 근접 연산자, 검색을 세분하기 위한 필드 수식자와 많은 다른 방법들의 사용법을 배웠다.

“오식”이 없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문자열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고 결과를 즉시 검색할 수 있었다. 검색 조합들을 손쉽게 재결

합할 수도 있었다. 꿈속에서 이 검색기능은 지나치게 복잡한 포인트 앤 클릭 인터페이스를 배제한 전문가 검색모드에서 이용 가능했다. 전문가 모드는 베테랑 검색자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초보자에게는 낭패의 원천이었다.

다행히 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만약 학장실에서 특수한 질문이 있어 전화를 하면 필자는 가능한 빨리 검색을 해야 한다. 필자는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서 검색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세분화하며, 적절한 인용문을 선택하여 전자우편으로 그것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 관리자들은 너무 바빠서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대개 시간을 내서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 때문에 도서관을 비추는 기분 좋은 빛이 바래지는 않는다.

드림랜드로 표류하기

한동안 필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학문의 세계 밖에도 삶이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필자는 휴가 동안에 참석할 서법 회의에 대비해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적절히 클론된 주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서법에 관한 논문들을 전부 검색하여, 펜

축에 관한 우수한 논문을 찾았다. 펜촉에 대한 설명은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는 공공 도서관에도 그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팔 수 있고, 또 꼭 그러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즐기리란 것도 알았다.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 마칠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필자는 중세의 필경사들에 관한 논문을 검색하다가, 깃대 자르는 법을 설명한 현대의 필경사와 조우했다. 필자는 첨부되어 있는 지시사항들을 인쇄했다. 또한 필자는 중세 수도원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거기서는 수도자들이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휴가를 준비하기에 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필자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악몽을 꾸었을 때 처럼 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낸 내적 만족감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많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최고로 우량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독특한 여행으로,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맞출 수 있었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일어나라고 알리는 알람 소리를 들었다.

일터로 나갈 채비를 하면서 간밤에 꾸은 꿈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선택권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고, 공급업체들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경쟁한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기업이 발전하면, 다른 기업들은 그 기업과 보조를 맞추거나 그 기업을 능가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ECotent에서는 귀하의 꿈을 알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서 제인 밤브리크는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신의 꿈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귀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문(全文)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는 본문이 없고 출판되지 않는 수치 데이터거나 다이나믹 비디오, 혹은 로컬 루머밀(rumor mill)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중인 인터페이스가 전통적 온라인 호스트의 부울 마인드세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자연 언어 처리와 관련 등급을 사용하면서 관련등급도 시스템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터페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응답의 질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본사에서는 사용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꿈을 꾸십시오.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인지 저희 EContent社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Marydee Ojala (marydee@xmission.com)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EContent 독자들에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업계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과 자신들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보기술 세계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때로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전자자원센터에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부가되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우리는 인터페이스에 속히 숙달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는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많은 요소들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일하러 걸어갈 때, 그레고리안 성가가 머리 속을 가득 채웠다. 도서관으로 다가갈 때, 그곳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 우주적인 날로 여겨졌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날은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머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의 대대적 개선이라는 행운을 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개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 제인 밤브리크 / 윌리엄 패터슨 대학